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探析 II*
- 多音字의 독음 분석을 중심으로 -

李 春 永**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2. 漢語 어음변천 현상의 영향 |
| II. 一形一義多音字의 多音관계 분석 | 3. 기타 |
| 1. 한국 漢字音의 반영 특성의 영향 | III. 결 론 |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한자음은 독자적인 토착어음으로 형성된 어음특징 이외에도 중국과의 정치·경제·문화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漢語의 古音과 어음변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국 토착어음의 특징을 연구하고 중국의 어음 변천사를 연구함에 있어 현대 한국 한자음은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한자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多音字의 존재이다. 다음자는 크게 하나의 문자 형태가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어음을 나타내는 一形多義多音字와 하나의 문자 형태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두 가지 이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A00108).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부교수

상의 어음을 가진 一形一義多音字로 구분할 수 있다. 한자의 多音현상은 《廣韻》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李添富가 主編한 《新校宋本廣韻》의 부록에 《광운》의 <又音又切表>를 첨부하였는데, 총 4,858字를 나열하고 있다.¹⁾ 또한 蔡曉娟의 분석에 의하면 명나라 《洪武正韻》에서는 2,713여개의 多音字가 나타나며, 孰자의 경우 9개의 어음이 보여 진다고 한다.²⁾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다양한 表意의 필요성에 의하여 引伸·假借되어 多音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어음학적인 각도에서 보면 古音과 今音·方言의 영향도 多音현상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한자의 多音현상은 表意와 表音を 字形에 의지하는 한자의 문자학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의 多音현상은 한어의 多音현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長은 《광운》에서 陽韻 澄母의 直良切과 養韻 知母 知丈切, 漾韻 澄母 直亮切로 나타난다. 현대 한어에서는 의미에 따라 zhǎng·zhàng과 cháng 등으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장’음 하나로 발음된다. 《광운》 怪韻 見母 古壞切과 怪韻 匣母 胡怪切로 어음이 표기된 壞는 현대 중국어에서 huài와 guài로 발음되고 한국 한자음에서도 ‘회’와 ‘괴’로 발음되지만, 壞血病的 壞는 현대 중국 한어에서는 huài로 발음되고 한국 한자음에서는 ‘괴’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은 자국의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探析’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民衆書林 《漢韓大字典》(제3판)의 一字一形一義多音字의 음을 표기한 本音과 俗音を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漢韓大字典》의 本音과 俗音 표기는 현대 한국 한자 어음에서 두 개 이상의 어음이 공존하거나 인식되고 있는 한자에 대한 표시이다. 한국 한자음 중 一字一形一義의 다음자는 특히 많은 어음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1) 李添富 主編, 《新校宋本廣韻》,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01.

2) 蔡曉娟, 《《洪武正韻》多音字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13-14쪽.

자료이다. 연구대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들의 語源的인 오류는 검증을 통해서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고에서는 一字一形一義多音字 多音 聲母의 어원적 관계를 분석하여 어음학적 자료와 실마리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다음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한국어 고유의 반영 특징’과 ‘한어 어음변천 및 현상의 영향’의 두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多音의 聲母관계 속에 담긴 어음학적 정보를 파악하여 한국 어음학 연구 및 중국 성운학 어음발전의 자료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一形一義多音字의 多音관계 분석

1. 한국 漢字音의 반영 특성의 영향

한국 고유의 漢字音 반영 특성에 의해 나타난 一形一義多音字의 多音현상 원인과 예는 다음과 같다.

1) 多音간의 合併

一形一義多音字 중 본 글자가 나타내는 다른 의미 어음의 영향으로 多音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음을 반영할 때 전통적으로 一字一音의 기본 원칙이 고수되었다.³⁾ 다음자가 하나의 어음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같은 형태의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어음’이 공존하게 되었거나 혹은 다른 어음의 영향을 받아 현대의 多音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1) 推

《광운》⁴⁾ 灰韻 他回切 透母 合口一等 推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퇴’

3) 嚴翼相, <多音漢字的中國音韻學的分析>, 《中國語文學論叢》 第10號, 1998, 383쪽.

로 발음되나 俗音 ‘추’가 남아있다. 이 글자는 현대 중국 방언에서 대부분 [t’]⁵⁾성모로 발음되고, 潮洲방언에서는 [ts’]성모로 발음되어 두 가지 어음이 나타나고 있다.⁶⁾ ‘추’음은 推의 다른 어음인 《광운》 脂韻 尺佳切 穿母 合口三等的 반영음으로, 灰韻 他回切 透母 合口一等的 반영음 ‘퇴’와 공존하고 있다.⁷⁾

(2) 蒼·橙

《集韻》 耕韻 除耕切 澄母 開口二等 蒼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등’으로 발음되나 本音を ‘중’으로 간주한다. 澄母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주로 ‘ㄷ’이나 ‘ㄸ’으로 반영된다. ‘등’은 蒼의 다른 어음 《광운》 登韻 都騰切 端母 開口一等的 반영음으로, 耕韻 除耕切 澄母 開口二等的 반영음 ‘증’과 공존하고 있다. 同音字 《광운》 耕韻 宅耕切 澄母 開口二等 橙도 같은 예이다. 橙도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등’으로 발음되나 本音を ‘증’으로 간주한다. ‘등’은 橙의 다른 독음 《광운》 嶝韻 都鄧切 端母 開口一等的 반영음이다.

(3) 羌

《집운》 漾韻 許亮切 曉母 開口三等 羌은 현대 한국에서 ‘강’으로 발음되고 本音を ‘항’으로 간주한다. 漾韻 許亮切 曉母 開口三等的 반영음인 ‘항’과 羌의 다른 독음 《광운》 陽韻 去羊切 溪母 開口三等的 반영음

4) 본고의 성모분석은 《광운》 41聲類와 反切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광운》에 수록되지 않은 글자는 《집운》을 참고하였다.

5) 본고의 한어병음은 그대로 표기하고 국제음표기법에 의한 발음은 []로 표기한다.

6)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第二版, 文學改革出版社, 1989, 161쪽.

7) 본고의 한어성모에 대한 한국 한자음의 반영관계는 줄고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探析-한어 어음변천사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제58집에 따른다. 아래 주석은 생략한다.

‘강’이 공존하고 있다.

(4) 耗

《광운》 号韻 呼到切 曉母 開口一等 耗는 현대 한국에서 ‘모’로 발음 되고 ‘호’를 本音으로 여긴다. 《광운》에서는 耗 밑에 주석하여 “耗, 俗作 耗”라 하였다.⁸⁾ ‘모’는 耗의 正字인 耗의 다른 독음 《집운》 号韻 莫報切 明母 開口一等的 반영음이다.

(5) 莠

《집운》 支韻 常支切 禪母 開口三等 莠는 현대 한어에서 ‘기’로 발음 되고 ‘지’를 本音으로 인식한다. 禪母字는 현대 한어에서 주로 ‘시’·‘즈’· ‘츠’으로 발음된다. ‘기’는 莠의 다른 독음 《광운》 支韻 巨支切 群母 開口三等的 반영음이다.

(6) 佺

《광운》 候韻 呼漏切 曉母 開口一等 佺는 현대 한국에서 ‘구’로 발음 되고, ‘후’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구’는 이 글자의 다른 어음 《집운》 虞韻 恭于切 見母 合口三等的 반영음이다.

(7) 鞫(鞫)

《광운》 燭韻 市玉切 禪母 合口三等 鞫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축’으로 발음되고 ‘숙’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축’은 鞫의 다른 어음 《광운》 燭韻 之欲切 照母 合口三等的 반영음이다.

(8) 鶻

《광운》 沒韻 戶骨切 匣母 合口一等 鶻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골’

8) 宋) 陳彭年 등, 《新校宋本廣韻》,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01, 418-419쪽.

로 발음되고 ‘홀’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沒韻 戶骨切 匣母 合口一等的 반영음 ‘홀’과 鶻의 다른 어음 《광운》 沒韻 古忽切 見母 合口一等的 반영음 ‘골’이 공존하고 있다.

(9) 澆

《광운》 蕭韻 古堯切 見母 開口四等 澆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요’로 발음되고 ‘교’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요’는 澆의 다른 어음 《광운》 嘯韻 五弔切 疑母 開口四等的 반영음으로, 蕭韻 古堯切 見母 開口四等的 반영음 ‘교’와 공존하고 있다.

(10) 墟

《광운》 魚韻 去魚切 溪母 開口三等 墟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허’로 발음되고 ‘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에서는 ‘去魚切, 又許魚切’이라 주석하고 있다.⁹⁾ ‘허’는 又音 許母 ‘許魚切’의 반영음이다.

(11) 壞

《광운》 怪韻 胡怪切 匣母 開口二等 壞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괴’로 발음되고 ‘회’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회’는 壞의 다른 어음 怪韻 古壞切 見母 開口二等的 반영음이다.

(12) 媵

《광운》 怙韻 苦協切 溪母 開口四等 媵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협’으로 발음되고 ‘겹’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협’은 媵의 다른 어음 怙韻 呼牒切 曉母 開口四等的 반영음이다.

9) 같은 책 71쪽.

(13) 姬

《광운》 之韻 與之切 喻母 開口三等 姬는 한국 한자음에서 ‘희’로 발음되고 ‘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기’는 姬의 다른 의미 ‘周姓也’¹⁰⁾의 之韻 居之切 見母 開口三等の 반영음이다. 之韻 與之切 喻母 開口三等の 반영음은 ‘의’가 되어야하나 ‘희’로 반영되는 것은 같은 발음부위인 匣·曉 두 聲母와의 互轉현상으로 보여 진다.

(14) 柚

《집운》 月韻 五忽切 疑母 合口一等 柚은 한국 한자음에서 ‘돌’로 발음되고 ‘올’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돌’은 柚의 다른 어음 《광운》 沒韻 當沒切 端母 合口一等的 반영음이다.

(15) 漾

《집운》 仙韻 徐連切 邪母 開口三等 漾은 한국 한자음에서 ‘연’으로 발음되고 ‘선’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연’은 漾의 다른 어음 《집운》 線韻 延面切 爲母 開口三等的 반영음이다.

(16) 迤

《광운》 諄韻 陟綸切 合口三等 知母 迤은 한국 한자음에서 ‘둔’으로 발음되고 ‘준’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한어에서 迤은 [tʂuən] 이외에도 [tʰuən]의 발음이 존재한다. ‘둔’은 한어 [tʰuən]발음의 어원의 반영음으로 보인다.

(17) 确·削

《광운》 宵韻 相邀切 心母 開口三等 确와 《집운》 笑韻 仙妙切 心母 開口三等 削은 한국 한자음에서 ‘초’로 발음되고 ‘소’를 本音으로 간주한

10) 같은 책 61쪽.

다. ‘초’는 硝와 削의 다른 語音 《집운》 笑韻 七肖切 淸母 開口三等の 반영음이다.

(18) 滂

《광운》 模韻 普胡切 滂母 合口一等 滂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부’로 발음되며 ‘포’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滂母는 현대 한어에서 초성 ‘ㅍ’이나 ‘포’으로 반영된다. ‘부’는 滂의 다른 어음 《광운》 虞韻 芳無切 敷母 合口三等の 반영음이다.

(19) 灑

《광운》 小韻 子小切 精母 開口三等 灑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소’로 발음되고 俗音 ‘초’가 공존한다. 精母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ㅈ’이나 ‘ㅊ’으로 반영된다. ‘소’는 灑의 다른 어음 《집운》 果韻 損果切 心母 合口一等的 반영음이다.

(20) 港

《광운》 講韻 古項切 見母 開口二等 港은 ‘항’으로 발음되고 ‘강’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항’은 港의 다른 어음 《집운》 絳韻 胡絳切 匣母 開口二等的 반영음이다.

(21) 徽

《광운》 蕭韻 古堯切 見母 開口四等 徽는 ‘요’로 발음되고 ‘교’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요’는 徽의 다른 어음 《집운》 宵韻 伊消切 影母 開口三等的 반영음이다.

(22) 涓

《광운》 先韻 古玄切 見母 合口四等 涓은 ‘연’으로 발음되고 ‘견’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연’은 涓의 다른 어음 《집운》 霰韻 縈絹切 影母 合口

四等の 반영음이다.

(23) 啞

《광운》 江韻 許江切 曉母 開口二等 啞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강’으로 발음되고 ‘항’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강’은 啞의 다른 어음 《집운》 江韻 枯江切 溪母 開口二等的 반영음이다.

(24) 嫗

《광운》 遇韻 衣遇切 影母 合口三等 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구’로 발음되고 ‘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구’는 嫗의 다른 어음 《집운》 侯韻 墟侯切 溪母 開口一等的 반영음이다.

(25) 蛙

《광운》 齊韻 烏攜切 影母 合口四等 蛙도 한국 한자음에서 ‘계’로 발음되고 ‘유’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계’는 蛙의 다른 어음 《집운》 霽韻 涓惠切 見母 合口四等的 반영음이다.

(26) 擘

《광운》 至韻 徐醉切 邪母 合口三等 擘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혜’로 발음되고 ‘수’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혜’는 擘의 한어 [xuei]음 어원에 대한 반영음으로 보인다.

(27) 擘

《광운》 葉韻 之涉切 照母 開口三等 擘은 한국 한자음에서 ‘습’으로 발음하고 ‘접’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습’은 擘의 다른 어음 《집운》 緝韻 席入切 邪母 開口三等的 반영음이다.

(28) 餉(饟)

《광운》 漾韻 式亮切 審母 開口三等 餉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향’으로 발음되고 ‘상’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상’은 餉의 한어 [ciaŋ]음 어원의 반영음이다.

(29) 穰

《광운》 陽韻 息良切 心母 開口三等 穰은 한국 한자음에서 ‘양’으로 반영되고 ‘상’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양’은 穰의 다른 어음 《광운》 漾韻 人攙切 日母 開口三等的 반영음이다.

(30) 涪

《광운》 魂韻 他昆切 透母 合口一等 涪은 한국 한자음에서 ‘군’으로 발음되고 ‘둔’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군’은 涪의 다른 어음 《집운》 言亨韻 俱倫切 見母 合口三等的 반영음이다.

(31) 杳

《광운》 篠韻 烏皎切 影母 開口四等 杳는 한국 한자음에서 ‘묘’로 발음되고 ‘요’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묘’는 杳의 다른 한어 어음 [miau]의 어원에 대한 반영음이다.

2) 軟音과 激音의 互轉

한국의 한자음 반영의 특징 중 하나가 한어의 送氣·不送氣나 清濁의 차이에 의한 구분이 반영되지 않고, 한국어의 활용 필요에 따라 해당 유사 음의 연음이나 격음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다.¹¹⁾ 현대 한국 一形一義多音字의 어음관계에도 연음과 격음의 차이로 多音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특히 ‘ㄷ’과 ‘ㅌ’, ‘ㅈ’과 ‘ㅊ’, ‘ㅊ’과 ‘ㅅ’, ‘ㅈ’과 ‘ㅊ’이 多音간

11) 참고, 앞의 논문 352쪽.

의 차이로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淸母 淸

淸母字의 고대에서 현대까지 어음변천과정은 [tsʰ] → [tsʰ] → 洪[tsʰ] · 細[teʰ]로 모두 有氣音을 나타내고 있다.¹²⁾ 발음방법상 한국 유기 자음으로 淸母字에 대응하는 것은 ‘ㄷ’이 적당하겠지만 실제 한국 한자음 반영내용에서 淸母字가 介音에 상관없이 모두 초성 ‘ㄷ’이나 ‘ㄷ’으로 반영되고 있다. 《광운》 勁韻 七政切 淸母 開口三等 淸은 한국 한자음에서 ‘정’으로 발음되고 ‘청’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2) 從母 粗

《광운》 姥韻 徂古切 從母 合口一等 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조’로 발음되고 ‘추’를 本音으로 한다. 《광운》에 ‘又千胡切’이라 주를 달고 있어¹³⁾ 淸母의 又音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從母와 淸母 모두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ㄷ’이나 ‘ㄷ’으로 반영되고 있다.

(3) 邪母 𪚩

《광운》 鹽韻 徐鹽切 邪母 開口三等 𪚩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잠’으로 발음되고 ‘섬’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邪母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ㅅ’으로 반영된다. 초성 ‘ㅅ’은 漢語의 같은 발음부위 精淸從 세 성모의 반영음이다.

(4) 禪母 辰

《광운》 眞韻 植鄰切 禪母 開口三等 辰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진’으로 발음되고 ‘신’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禪母는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

12)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491쪽.

13) 宋) 陳彭年 등, 같은 책 266쪽.

한자음에서 초성 ‘ㅅ’으로 반영된다. 漢語에서 禪母의 일부 平聲 글자들은 [tʂʰ]로 발음되고, 대부분 [ʂ]로 발음된다. 辰은 漢語에서 [tʂʰ]로 발음되며, 武漢·成都·長沙·南昌·梅縣·廈門·福州 방언에서는 [s]성모로 발음되고, 廣州·陽江 등지에서는 [ʃ]로 발음된다.¹⁴⁾ 초성 ‘ㄷ’은 禪母와 같은 발음부위인 照·穿 두 성모의 반영음이다.

(5) 初母 滂

《광운》 寢韻 初朕切 初母 開口三等 滂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참’으로 발음되고 俗音 ‘샵’도 동시에 존재한다. 初母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주로 ‘ㄷ’이나 ‘ㄷ’으로 반영되지만 일부 소수 글자 鍾插鐘 등은 같은 발음 부위인 疎母의 반영음인 초성 ‘ㅅ’으로 반영되기도 한다.¹⁵⁾

(6) 照母 摺

《광운》 業韻 之涉切 照母 開口三等 摺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접’으로 발음되고 ‘섭’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照母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주로 초성 ‘ㄷ’이나 ‘ㄷ’으로 반영되고, 일부 글자들은 ‘ㅅ’으로 반영한다. 照母와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神·審·禪이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초성 ‘ㅅ’으로 반영된다.

(7) 牀母 狀·禡

《광운》 漾韻 鋤亮切 牀母 開口三等 狀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상’으로 발음되고 ‘장’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牀母 開口細音字는 한국 한자음에서 ‘ㄷ’·‘ㄷ’·‘ㅅ’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ㄷ’과 ‘ㅅ’의 어음이 공존하는 같은 예로 禡가 있다. 《광운》 禡韻 鋤駕切 牀母 開口二等 禡는 한국 한자음에서 ‘사’로 발음되고 ‘자’를 本音으로 간

14) 王力, 앞의 책 278쪽.

15) 줄고, 앞의 논문 351쪽.

주한다.

(8) 澄母 宅

《광운》 陌韻 場伯切 澄母 開口二等 宅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택’으로 발음되며, 俗音 ‘택’이 공존한다. 澄母字는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초성 ‘ㄷ’이나 ‘ㅌ’으로 반영되지만 澄母의 일부 開口二等 글자들은 定母에서 분화되기 이전의 어음을 반영하고 있다.¹⁶⁾ 이 글자들은 현대 한국에서 초성 ‘ㄷ’이나 ‘ㅌ’으로 반영되며 宅의 어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宅은 현대 중국의 廈門·潮州·福州 등지의 방언에서도 성모 [tʰ]로 발음되며, 建甌 방언에서는 성모 [t]로 발음되고 있음을 볼 때¹⁷⁾ 유기음과 무기음의 互轉 현상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9) 定母 潭·逮

《광운》 旱韻 徒旱切 定母 開口一等 潭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단’으로 발음되고 本音은 ‘탄’으로 인식된다. 定母字는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ㄷ’이나 ‘ㅌ’으로 발음된다. 같은 예로 《집운》 代韻 待戴切 定母 開口一等 石隸(逮)도 ‘태’로 발음되고 本音을 ‘대’로 간주한다.

3) 頭音法則

한글의 대표적인 어음현상 중의 하나가 두음법칙이다.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ㄱ’이나 ‘ㄴ’이 꺼려지는 경향을 말한다. 한자음 반영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대 한국 一字一形一義多音字에서도 두음법칙에 의한 다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자료가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6) 줄고, 앞의 논문 346쪽.

17)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148쪽.

(1) 鵝·孃

《광운》 肴韻 女交切 娘母 開口二等 鵝는 한국 한자음에서 ‘요’로 발음되고 ‘뇨’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娘母字는 현대 한어에서 [n]으로 발음되고 한국 한자어에서는 초성 ‘ㄴ’으로 반영되었다. 이 글자의 모음 ‘요’ 앞의 초성에 ‘ㄴ’ 발음이 꺼려져서 ‘요’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埭

《광운》 薛韻 力輟切 來母 合口三等 埭은 한국 한자음에서 ‘날’로 발음되고 ‘렬’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來母字는 현대 한어에서 l로 발음되고 한국 한자어에서는 초성 ‘ㄴ’으로 반영된다. 이 글자의 중성 및 종성 ‘알’ 앞의 초성에 ‘ㄴ’ 발음이 꺼려져서 ‘날’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埭의 同音字인 劣도 武漢과 成都 지역 방언에서는 성모 [n]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¹⁸⁾ 발음의 용이성은 한자 발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 기타

(1) 氏

《광운》 紙韻 承紙切 禪母 開口三等 氏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씨’로 발음되고 ‘시’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禪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초성 ‘ㅅ’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氏는 일반적으로 초성 ‘ㅅ’의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의 같은 예로 된소리화된 ‘쌍’으로 발음되는 疏母의 雙(江韻 所江切 開口二等)과 雙을 聲符로 가진 雙雙雙 등이 있다. 그러나 氏의 경우는 氏를 聲符로 가진 眡鴟 등은 ‘시’로 발음되고 ‘氏’만이 ‘씨’와 ‘시’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어음체계에서는 15세기 중엽 훈민정음 체계에 이르면 ‘ㅅ’음이 나타난다. 한국 어음체계에 ‘ㅅ’음이 생성된 이후, 全濁音인 疏母와 禪母의 ‘雙’·‘雙’·‘氏’ 등의 글자가 漢語의 正音체계를 본

18) 같은 책, 45쪽.

받으려는 조정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당시 漢語 발음 舌尖后音[ʂ]의 영향을 받아서 ‘쓰’음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 진다.¹⁹⁾

(2) 초성 ‘ㅅ’의 탈락

· 搗

《광운》 鍾韻 書容切 審母 合口三等 搗는 한국 한자음에서 ‘용’으로 발음되고 ‘송’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審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ㅅ’으로 반영된다. 聲符이자 同音字인 ‘春’도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용’으로 발음된다. 중성 ‘ㄱ’ 앞에서 자음 ‘ㅅ’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 ‘송’이 아닌 ‘용’과 ‘송’의 두 음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驤· 襁

《광운》 陽韻 息良切 心母 開口三等 驤· 襁는 한국 한자음에서 ‘양’으로 반영되고 ‘상’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心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ㅅ’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들은 모두 ‘ㅇ’으로 반영되고 있다. 同音字이자 聲符 襄도 ‘양’으로 발음된다. 중성 ‘ㅈ’ 앞에서 자음 ‘ㅅ’이 탈락하였다.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 ‘상’이 아닌 ‘양’과 ‘상’의 두 음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漢語 어음변천 현상의 영향

상고시대 이전 한자가 한국에 유입된 이후에도 한중 양국 간은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어 어음변천과정이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 한국 一字一形一義 多音字의 多音의 성모관계에도 한어 어음변천과정의 영향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19) 참고, 앞의 논문 355쪽.

1) 漢語 知徹澄 세 성모의 어음변천

중국에서 隋唐 이전까지 知系字(知徹澄娘)와 端系字(端透定泥)는 각각 同音으로 발음되다가 五代 이후부터 분화되었다.²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知徹澄 세 성모는 ‘ㄷ’이나 ‘ㄷ’ 초성으로 반영되고, 端透定은 ‘ㄷ’이나 ‘ㅌ’ 초성으로 반영되고 있다.²¹⁾ 현대 한국 一字一形一義 多音字에서는 知徹澄 세 성모의 글자들이 ‘ㄷ’이나 ‘ㄷ’ 초성 발음과 현대 端透定의 반영음 ‘ㄷ’·‘ㅌ’ 초성 발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어 知系字 어음변천과정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知母 毛·啄·巒

《집운》 陌韻 陟格切 開口二等 知母 毛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탁’음으로 상용되나 本音を ‘착’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知母字는 주로 초성 ‘ㄷ’·‘ㄷ’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초성 ‘ㄷ’이나 ‘ㅌ’으로 반영되는 것은 같은 발음 방법의 端母字가 있다. 한어 知母字가 隋唐 이전에 端母字와 동음인 [t]로 발음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隋唐 이전의 古音이 현대 한국에서 남아 多音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로 《광운》 覺韻 竹角切 開口二等 知母 啄은 ‘탁’으로 발음되고 本音を ‘착’으로 간주하고, 《광운》 絳韻 陟降切 開口二等 知母 巒은 ‘당’으로 발음되고 本音を ‘장’으로 간주한다.

(2) 徹母 連·瞳·黻·櫨

《광운》 覺韻 敕角切 開口二等 徹母 連은 한국 한자음에서는 ‘탁’음으로 읽혀지나 本音を ‘착’으로 간주한다. 이 글자는 현대 한자음에서 [tɕ‘uo]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徹母字가 ‘ㄷ’·‘ㄷ’으로 반영되고 있고 같은 발음 방법을 가진 透母字는 ‘ㄷ’·‘ㅌ’ 초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隋唐

20) 王力, 앞의 책 492쪽.

21) 줄고, 앞의 논문 343-344쪽.

이전에 徹母字와 透母字가 동음으로 발음된 것을 고려할 때, 遑은 현대 한국에서 古音이 잔존하여 多音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로 《광운》 庚韻 丑庚切 開口二等 徹母 瞳(당: 本音 쟁), 《광운》 覺韻 勅角切 開口二等 徹母 黠(탁: 本音 착), 庚韻 丑庚切 開口二等 徹母 檠(탕: 俗音 쟁) 등이 있다.

(3) 澄母 茶·糴

《광운》 麻韻 宅加切 開口二等 澄母 茶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다’로 발음되고 ‘차’의 俗音을 가진다. 현대 중국에서도 [tʂʰa]음 이외에도 福州와 建瓯 방언에서는 [ta]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澄母字가 현대 한국에서 같은 발음방법의 定母의 반영음인 초성 ‘ㄷ’으로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茶는 현대 한국에서 古音이 잔존하여 多音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로, 《집운》 江韻 傳江切 開口二等 澄母 耒童(당: 本音 장)이 있다.

2) 漢語 爲母 어음변천

爲母字는 중국에서 隋唐 이전까지 匣母字와 同音으로 발음되다가 五代 이후에 爲母와 匣母로 분화되었다.²²⁾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爲母字는 주로 초성 ‘ㅇ’으로 반영되고, 匣母字은 주로 초성 ‘ㅎ’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爲母 일부 글자 夔鴉 등은 匣母의 반영음인 초성 ‘ㅎ’으로 반영되고 있으며²³⁾ 이러한 현상은 현대 한국 一形一義多音字의 多音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暈

《광운》 問韻 王問切 合口三等 爲母 暈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훈’

22) 王力, 앞의 책 496쪽.

23) 줄고, 앞의 논문 350쪽.

으로 발음되고 ‘운’을 본음으로 간주한다. 이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零聲母로 발음되고 있지만, 潮州·廈門의 문언문·福州의 俗音에서는 성모 [h]로 발음되고 있다.²⁴⁾ 한국 한자음에서의 반영음과 중국 일부 방언에서 爲母의 古音이 공존하여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漢語 牙音과 喉音의 互轉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牙音(見·溪·群) 세 성모의 일부 글자들이 喉音(曉·匣·影)의 주요 반영음인 ‘ㅎ’이나 ‘ㅇ’의 어음으로 반영되고, 喉音의 일부 글자들이 牙音의 주요 반영음인 ‘ㄱ’으로 반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²⁵⁾ 현대 한국 一形一義多音字의 多音관계에서도 아음과 후음 반영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어 두 계열 성모의 발음부위가 근접하여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霍·灌·鞣(轟)·晌·歛·歿

《집운》 鐸韻 忽郭切 曉母 合口一等 霍과 同音 《광운》 鐸韻 虛郭切 曉母 合口一等 灌은 현대 한어에서 ‘곽’으로 발음되고, ‘확’을 본음으로 간주한다. 현대 漢語에서는 曉母 洪音의 어음변천에 따라 [xuo]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에서는 牙音의 반영음인 초성 ‘ㄱ’의 발음이 공존한다. 同音字인 ‘霍’은 한어에서는 성모 [x]로 발음되나 陽江지역에서는 성모 [k]로 발음되고 있다.²⁶⁾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집운》 耕韻 呼宏切 曉母 合口二等 車旬은 ‘굉’으로 발음되고 ‘횡’이 본음으로 간주된다. 현대 한어에서는 [xuŋ]으로 발음되고 있으나 廣州·陽江지역 방언에서는 牙音의 [kuɛŋ]로 발음되고 있다.²⁷⁾ 《광운》 遇韻 香旬切 曉母 合口三等 晌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후’로 발음되며 俗音 ‘구’가 공존한다. 《광운》 慶韻

24)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300쪽.

25) 줄고, 앞의 논문 340-345쪽.

26)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41쪽.

27) 같은 책 367쪽.

況羽切 曉母 合口三等 歛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구’로 발음되고 ‘후’를 본음으로 간주한다. 《광운》 候韻 呼漏切 曉母 開口一等 歛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구’로 발음되고 ‘후’를 본음으로 간주한다.

(2) 敷·媼·梛·齡·癩·髡·憾·夥

《광운》 錫韻 胡狄切 匣韻 開口四等 敷은 현대 한국어에서 ‘격’으로 발음되고, ‘혁’이 본음으로 간주된다. 현대 한어에서는 匣母 細音의 어음변천에 따라 [ci]로 발음된다. 그러나 한국 반영음에서 牙音의 반영음인 초성 ‘ㄱ’의 발음이 공존한다.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광운》 姥韻 侯古切 匣母 合口一等 媼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호’로 발음되고 俗音 ‘고’가 공존하고 있다. 《광운》 江韻 下江切 匣母 開口二等 梛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항’으로 발음되고 俗音 ‘강’이 공존한다. 이 글자와 同音字인 降(投降)이 漢語에서는 성모 [c]로 발음되지만 南昌·梅縣·廈門·潮州 방언에서는 성모 [h]로 발음되고 陽江 방언에서는 성모 [k]로 발음된다.²⁸⁾ 《광운》 怪韻 胡介切 匣母 開口二等 齡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계’로 발음되고 ‘헤’를 본음으로 간주한다. 同音字인 械도 武漢·長沙·雙峰 지역에서 성모 [k]로 발음되고 있다.²⁹⁾ 《광운》 山韻 戶閑切 匣母 開口二等 癩은 ‘간’으로 발음되고 ‘한’을 본음으로 간주한다. 《광운》 曷韻 胡葛切 匣母 開口一等 髡는 ‘갈’로 발음되고 본음을 ‘할’로 간주한다. 《광운》 勘韻 胡紺切 匣母 開口一等 憾은 ‘감’으로 발음되고 ‘함’을 본음으로 간주한다. 《광운》 果韻 胡果切 匣母 合口一等 夥은 ‘과’로 발음되고 ‘화’를 본음으로 간주한다.

(3) 縮·焮·暘·漚·顛

《광운》 漕韻 烏板切 影母 開口二等 縮은 ‘관’으로 읽혀지고, ‘완’을 본

28) 같은 책 319쪽.

29) 같은 책 50쪽.

음으로 간주한다. 이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uan]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에서 牙音의 반영음 초성 ‘ㄱ’의 어음이 공존한다.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집운》 侯韻 烏侯切 影母 開口一等 焮도 ‘구’로 발음되고 ‘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月韻 於歇切 影母 開口三等 暘도 한국 한자음에서 ‘갈’로 발음되고 ‘알’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侯韻 烏侯切 影母 開口一等이자 候韻 烏侯切 影母 開口一等인 漚도 한국 한자음에서 ‘구’로 발음되고 ‘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집운》 侯韻 烏侯切 影母 開口一等 區頁도 한국 한자음에서 ‘구’로 발음되고 ‘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4) 頷·鏞·鞮·鎗·疥·嬰·吃·鰥·垓·髡·懦·澹·楷·姬

《광운》 合韻 古沓切 見母 開口一等 頷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합’으로 발음되고 本音을 ‘갑’으로 간주한다. 頷의 同音字인 鵠은 漢語에서 일반적으로 성모 [k]로 발음되지만 雙峰 방언에서는 [k]와 [x] 발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⁰⁾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광운》 屑韻 古穴切 見母 合口四等 鏞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홀’로 발음되지만 本音을 ‘결’로 간주하고 있고, 《광운》 狎韻 古狎切 見母 開口二等 革盍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합’으로 발음되며 本音을 ‘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운》 泰韻 古外切 見母 合口一等 食會도 ‘회’로 발음되나 ‘괴’를 本音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광운》 怪韻 古拜切 見母 開口二等 疥는 ‘해’와 ‘개’의 두 가지 음이 공존하나 ‘개’를 本音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운》 藥韻 居縛切 見母 合口三等 嬰는 한국 한자음에서 ‘확’으로 상용되고 ‘괘’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迄韻 居乙切 見母 開口三等 吃도 ‘홀’로 발음되고 ‘글’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山韻 古頑切 見母 合口二等 鰥은 ‘환’으로 발음되고 ‘관’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哈韻 古哀切 見母 開口一等 垓는 ‘해’로 발음되고 ‘개’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30) 같은 책 22쪽.

皓韻 古老切 見母 開口一等 鬪는 ‘호’로 발음되고 ‘고’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屑韻 古穴切 見母 合口四等 橘는 ‘홀’로 발음되고 ‘결’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泰韻 古外切 見母 合口一等 滄는 ‘회’로 발음되고 ‘괴’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皆韻 古諧切 見母 開口二等 楷는 ‘해’로 발음되고 ‘개’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之韻 居之切 見母 開口三等 姬는 ‘희’로 발음되고 ‘기’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5) 蝸·駟·媯·傲

《광운》 麻韻 古華切 見母 合口二等 蝸는 ‘와’로 발음되고 ‘과’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媯는 漢語에서 주로 零聲母로 발음되지만, 濟南·西安·太原·蘇州 등의 방언에서는 성모 [k]와 零聲母 발음이 공존하고 있으며 溫州에서는 [k]음으로만 발음되고 있다.³¹⁾ 見母가 零聲母로 발음되는 현상은 중국 현대 방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들은 다음과 같다. 《광운》 佳韻 古蛙切 見母 開口二等 駟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왜’로 발음되고 ‘괘’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駟와 同音字인 媯도 ‘왜’로 발음되고 ‘괘’를 本音으로 간주하며, 《광운》 麻韻 古華切 見母 合口二等 媯는 ‘와’로 발음되고 ‘과’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광운》 蕭韻 古堯切 見母 開口四等 傲는 ‘요’로 발음되고 ‘교’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6) 尙·囑·睞·塙

《광운》 佳韻 苦縞切 溪母 合口二等 尙와 囑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와’로 발음되고 ‘괘’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집운》 緝韻 乞及切 溪母 開口三等 目睞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급’으로 발음되고 俗音 ‘읍’이 공존한다. 《광운》 肴韻 口交切 溪母 開口二等 塙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요’로 발음되고 本音을 ‘교’로 간주한다.

31) 같은 책 42쪽.

(7) 餉·楷·欠·帛·廓

《광운》 號韻 苦到切 溪母 開口一等 食高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호’로 발음되고 ‘고’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광운》 駭韻 苦駭切 溪母 開口二等 楷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해’로 발음되고 ‘개’가 本音으로 간주된다. 《광운》 梵韻 去劍切 溪母 開口三等 欠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흠’으로 발음되고 ‘검’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欠은 漢語에서 성모 [tcʰ]로 발음되지만 廣州와 陽江 방언에서는 성모 [h]로 발음된다.³²⁾ 《광운》 洽韻 苦洽切 溪母 開口二等 帛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흡’으로 발음되고 ‘겹’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帛은 同音字인 恰은 漢語에서 성모 [tcʰ]로 발음되지만 廣州 방언에서는 성모 [h]로 발음된다.³³⁾ 《광운》 鐸韻 苦郭切 溪母 合口一等 廓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확’으로 발음되고 ‘곽’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8) 驗

《광운》 豔韻 魚窆切 疑母 開口三等 驗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협’으로 발음되고 ‘엄’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驗은 疑母의 반영음 초성 ‘ㅇ’과 匣·曉의 반영음 ‘ㅎ’이 공존하고 있다.

3. 기타

위의 ‘한국 한자음 반영 특성’과 명확한 ‘한어 어음변천 현상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 본 장에서는 多音간의 관계를 성부와 성모의 발음방법 및 발음부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多音 발생 원인과 어음적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32) 같은 책 253쪽.

33) 같은 책 11쪽.

1) 形聲字 반영음과 聲符 반영음

一形一義多音 形聲字 자료 중 形聲字 본래의 반영음과 聲符의 반영음이 동시에 인식되는 多音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形聲字에서 聲符의 기능을 고려할 때 聲符의 어음적인 위치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 특히 漢字를 수용하고 어음을 반영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聲符의 어음자료는 매우 중요한 어음근거가 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燭·驪

《광운》 葉韻 尼輒切 娘母 開口三等 燭과 同音字인 《집운》 葉韻 呢輒切 娘母 開口三等 驪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섭’으로 발음되고 ‘녘’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聲符 聶은 《광운》 葉韻 ‘實攝切’(禪母)로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섭’으로 발음된다.

(2) 魑·魍(螭)·臆

《광운》 支韻 丑知切 徹母 開口三等 魑·魍(螭)와 同音字인 《집운》 支韻 抽知切 徹母 開口三等 臆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리’로 발음되고 ‘치’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聲符 ‘离’가 《광운》 支韻 呂知切 來母 開口三等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리’로 발음되고 있다.

(3) 挺

《광운》 仙韻 式連切 審母 開口三等 挺은 한국 한자음에서 ‘당기다’·‘오래’의 의미일 때 ‘연’이라 발음하고 ‘선’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聲符 延이 《광운》 仙韻 以然切 喻母 開口三等으로 한국어에서 ‘연’으로 발음되고 있다.

(4) 女戎

《광운》 東韻 息弓切 心母 開口三等 女戎은 한국 한자음에서 ‘융’으로 발음되고 ‘승’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聲符 ‘戎’이 《광운》 東韻 如融切 日

母 開口三等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용’으로 발음된다.

(5) 杵

《광운》 寘韻 斯義切 心母 開口三等 杵는 한국 한자음에서 ‘지’로 발음되고 ‘시’를 본음으로 간주한다. 聲符 止가 《광운》 止韻 諸市切 照母 開口三等으로 한국 한자음에서 ‘지’로 발음된다.

(6) 颯(觸)

《광운》 屋韻 徒谷切 定母 開口一等 颯은 현대 한어에서 ‘촉’으로 발음되고 ‘독’을 본음으로 간주한다. 聲符 ‘蜀’이 《광운》 燭韻 市玉切 禪母 合口三等으로 한국 한자음에서 ‘촉’으로 발음된다.

(7) 娃

《광운》 厚韻 天口切 透母 開口一等 娃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주’로 발음되고 본음은 ‘투’로 인식되고 있다. 聲符 ‘主’가 《광운》 慶韻 之庾切 喻母 合口三等으로 현대 한국에서 ‘주’로 발음된다.

2) 漢語 같은 발음부위 성모간의 互轉

一字一形一義多音字 중 聲符가 同音字이거나 聲符 어음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 자료 중 漢語의 같은 발음부위간의 互轉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章炳麟의 ‘古雙聲說’이나 黃侃의 ‘古音同互變’설에 의하면 漢語에서 발음부위가 같은 성모들끼리 互轉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³⁴⁾ 그 예와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鷓

《광운》 術韻 餘律切 喻母 合口三等 鷓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홀’

34) 陳新雄, 《古音學發微》, 文史哲出版社, 1972, 643-647, 669-672쪽.

로 발음되고 ‘울’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한국 한자음에서 喻母는 주로 초성 ‘ㅇ’으로 반영되지만 鷗은 같은 발음 부위인 匣·曉의 반영음인 ‘ㅎ’으로 반영되고 있다.

(2) 癘·滂·駟

《광운》 江韻 莫江切 明母 開口二等 癘·滂·駟은 한국 한자음에서 ‘방’으로 발음되고 ‘망’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明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ㄹ’으로 반영되지만 이 세 글자는 모두 초성 ‘ㄹ’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글자들과 동음자이자 聲符인 虜 또한 한국 한자음에서 ‘방’으로 발음된다. 같은 발음부위인 幫·滂·並 세 성모가 한국어에서 ‘ㄹ’이나 ‘ㄹ’으로 반영된다.

(3) 淬

《광운》 隊韻 七內切 淸母 合口一等 淬는 한국 한자음에서 ‘쉬’로 발음되고 ‘취’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淸母는 기본적으로 한국 한자음에서 ‘ㅈ’이나 ‘ㅊ’으로 발음되고 猜焠 등의 일부 한자는 ‘ㅈ’으로 발음되기도 한다.³⁵⁾ 같은 발음 부위인 心母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ㅈ’으로 반영되고 있다.

(4) 鮑·噪·梢·擧·媯

《광운》 宵韻 相邀切 心母 開口三等 鮑가 한국 한자음에서 ‘조’로 발음되고 本音이 ‘소’로 간주되고 있다. 心母 細音의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한어 어음변천과정은 [s] → [s] → [c]이며, 한국 한자음에서 잇소리 ‘ㅈ’음으로 반영된다. 한자음에서 유기음 ‘ㅊ’으로 반영되는 같은 발음부위 精淸從 세 성모이다. 같은 예로 《광운》 號韻 蘇到切 心母 開口一等 噪는 ‘조’로 발음되고 ‘소’를 本音으로 간주한다. 현대 한어에서 [sao]로 발음되

35) 줄고, 앞의 논문 335쪽.

는 《광운》 肴韻 所交切 疏母 開口二等의 鮑는 한국 한자음에서 ‘초’로 발음되고 本音이 ‘소’로 간주되고 있다. 疏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초성 ‘스’로 반영되나 일부 글자들은 介音에 상관없이 ‘ㅈ’이나 ‘ㅊ’으로 반영된다. 같은 발음부위인 莊·初·牀도 일반적으로 ‘ㅈ’이나 ‘ㅊ’으로 반영되나 일부에서 ‘스’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³⁶⁾ 鮑의 ‘초’음은 莊·初·牀母와의 ‘互變’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같은 예로 동음자인 梢·媯와 《광운》 效韻 所教切 疏母 開口二等 掣·媯도 한국 한자음에서 ‘초’로 발음되고 本音이 ‘소’로 간주되고 있다.

3) 漢語 같은 발음방법 성모간의 互轉

一形一義多音 形聲字 자료 중 多音현상이 漢語의 같은 발음방법간의 互轉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 진다. 黃侃의 ‘同位相變’설에 의하면 漢語에서 발음방법이 같은 성모들끼리 互轉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³⁷⁾ 그 예와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浣

《광운》 緩韻 胡管切 匣母 合口一等 浣은 한국 한자음에서 ‘완’이라 발음하고 ‘환’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匣母는 주로 초성 ‘ㅎ’으로 반영된다. 같은 발음부위 影·喻·爲 세 성모가 한어에서 영성모로 변천하였다. 浣과 同音字인 緩도 한국어에서 ‘완’으로 발음되며 廣州·廈門 등 일부 중국 방언에서도 零聲母로 발음된다.³⁸⁾

(2) 戀

《광운》 桓韻 落官切 來母 合口一等 戀은 한국 한자음에서 ‘만’으로 발음되고 ‘란’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來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 ‘ㄹ’로

36) 줄고, 같은 논문 351-355쪽.

37) 陳新雄, 앞의 책 672-674쪽.

38)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266쪽.

반영되나 巒 은 ‘ㄹ’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글자는 聲符가 同音字이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ㄹ’으로 발음된다. 같은 次濁인 明母와의 互轉현상으로 보여 진다.

(3) 騁

《광운》 靜韻 丑郢切 徹母 開口三等 騁은 한국 한자음에서 ‘빙’으로 발음되고 ‘칭’을 本音으로 간주한다. 徹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주로 초성 ‘ㄷ’이나 ‘ㄸ’으로 반영되지만 騁은 ‘ㅂ’으로 반영되고 있다. 동일하게 次清으로 발음되는 滂·敷 두 聲母와의 互轉현상으로 보여 진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 한국 一形一義多音字의 다음간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어음에 대한 한어 어원 분석을 통해 多音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多音관계는 매우 복잡한 요인과 층차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분야이며, 하나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결론을 규정지을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크게 ‘한국 한자음 반영 특성’과 ‘한어 어음변천 현상의 영향’의 측면에서 多音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현대 한국 다음자의 어음에 남아있는 어음적 정보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한국 漢字音 반영 특성의 영향’으로 一字 多音간의 合併, 軟音과 激音의 互轉, 頭音法則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漢語 어음변천 현상의 영향’으로 漢語 知徹澄 세 성모의 어음변천, 漢語 爲母 어음변천, 漢語 牙音과 喉音의 互轉의 측면에서 다음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외 기타자료는 ‘形聲字 반영음과 聲符 반영음’·‘漢語 같은 발음부위 성모간의 互轉’·‘漢語 같은 발음방법 성모간의 互轉’의 세 각도에서 분석을 통해 多音 간의 충분한 어음관계가 존재함을 고찰하였다.

< 參考文獻 >

- 丁度 등, 《校訂本集韻》, 學海出版社, 1986.
-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1980.
-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華岡出版部, 1973.
- 孔仲溫, 《韻鏡研究》, 臺灣學生書局, 1987.
-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 李基文,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1991.
- 李炳傑, 《破音字探原》, 文豪出版社, 1983.
- 竺家寧, 《聲韻學》, 五南圖書出版公司, 1992.
- 孫強, 《現代漢語多音字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陳彭年 등, 《新校宋本廣韻》,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01.
- 陳新雄, 《古音學發微》, 文史哲出版社, 1996.
- 陳新雄 編著, 《新編中原音韻概要》, 學海出版社, 2001.
- 蔡曉娟, 《《洪武正韻》多音字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 嚴翼相, <多音漢字的 中國音韻學的 分析>, 《中國語文學論叢》 第10號, 1998.
- 이춘영,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探析 -한어 어음변천사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제58집, 2011.

< 中文提要 >

多音字爲現代韓中兩國漢字之重要特徵之一, 不過兩國多音字的多音現象有差別。爲了本國使用的方便, 現在韓國的多音字在反映漢字音的過程中呈現出本國特有的傾向, 並呈現出漢語語音變遷的影響, 因此現代韓國的多

音字的語音關係可以提供重要的語音學資料。多音字可以分爲“一字一形多義多音字”和“一字一形一義多音字”兩大類。本論文以現代韓國“一字一形一義多音字”做爲研究對象，主要從“韓國漢字音反映特徵的影響”與“漢語語音變遷的影響”兩個角度進行研究，分析多音的語源與其間的語音關係，並從而考察現代韓國一形一義多音字的形成原因和其中的語音線索與資料。通過研究分析出“一形一義多音字”的多音所呈現的韓國漢字音反映特徵的影響主要爲：“多音的合併”、“軟音和激音的互轉”、“頭音法則”；漢語語音變遷現象的影響主要爲：“漢語知、徹、澄三聲母的語音變遷”、“漢語爲母的語音變遷”、“漢語牙音和喉音的互轉”。

주제어 : 성모(Initial of Chinese Character), 한국한자음(Korean Words),
다음자(multi sound letters), 현대 한국 한자음(Chinese Character
of Modern Korean), 한자(Chinese Character)

